

여성 운동의 새로운 지평을 위하여†

박진희*

여성을 둘러싼 사회 환경의 변화들은 여성 운동의 의제와 이를 구성하는 담론의 변화를 낳고 있다. 자본과 노동의 자유로운 이동에 근간하는 신자유주의의 확산은 여성 노동을 전지구적으로 재배치해놓았으며, 생식기술을 비롯한 생명공학 기술의 급속한 발전은 여성의 젠더 정체성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90년대 성 주류화 전략에 따라 노동 분야에서 남성과 동등한 권리를 보장 받기 위한 여성 노동 운동은 해결 과제들이 다룰 수 밖에 없는 비정규 여성 노동, 이주 여성 노동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불임 기술, 사전이식유전진단법 등 생명공학기술의 발달은 여성의 젠더 정체성을 규정된 어떤 것이 아니라 선택 구성될 수 있는 것으로 변화시키고 있다. 이들 과학기술의 발달은 섹슈엘리티와 젠더의 분리를 강화시켜 놓기도 하였다. 이는 여성의 범주 내에 계층 혹은 계급적 차이만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과 같은 공간적 차이, 섹슈엘리티에 의한 차이도 존재할 수 있음을 뜻한다. 레즈비언의 권리 운동의 등장이 여성 내 존재하는 섹슈엘리티 차이를 보여주는 것이다.

『벌거벗은 생명』은 이와같은 신자유주의 지구화, 이주화, IT/BT의 산업화 등이 여성의 삶에 영향을 미치며 여성학과 여성운동의 지형에 어떤 변화를 낳고 있는지를 천착하고 있다. 여성 체험의 차이들이 계급, 인종, 지역, 섹슈엘리티 등의 여러 사회 체제들이 상호 교차하면서 어떻게 구성되고, 이에

† 조주현 (2009), 『벌거벗은 생명: - 신자유주의 시대의 생명 정치와 페미니즘』, 또 하나의 문화.

* 동국대학교 교양교육원
전자우편: jiniibg@hanmail.net

따라 '여성' 범주가 어떻게 분화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자 했다. '여성' 범주의 중층적 구조를 드러냄으로써 단일한 '여성' 범주에 입각한 기존 젠더 정치의 한계를 지적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전략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저자는 "다양한 사회 체계들이 상호 교차하면서 여성 체험을 구성해 가는 과정을 면밀히 고찰" 하여 "여성 체험의 차이들을 배제하지 않는 여성 운동의 방향과 과제"를 찾아야 하고 "여성운동이 미리 확정된 여성 범주에 의존할 수 없고 상황과 사안에 따라 구성되는 여성 범주에 의존"해야 함을 제안하고 있다.

다양한 사회 체계들이 여성 체험을 구성해가는 과정을 드러내주기 위해 저자는 시험관 시술과 배아복제 줄기 세포 연구와 여성의 몸 체험, 이주 여성 노동자의 정체성, 군가산점 논쟁, 대학 내 성희롱, 밀양 고교생 집단 강간 사건을 사례로 분석하고 있다. 시험관 아기 시술이라는 과학기술은 생물학적 모성을 강화시키는 효과를 낳고 자신의 몸을 대상화하는 경험을 제공하였다. 한편, 불임 치료 과정에서 여성들은 모성과 '내 몸'을 새롭게 성찰할 기회를 갖게 되면서 기존에 정의된 모성이나 개인 소유 대상으로서 몸에 대한 정의에 의문을 제기하기도 한다. 한편, 배아줄기세포 연구에 대한 국가적 지원 하에서 여성의 몸은 국가 경쟁력을 위한 자원으로 해석되면서 여성의 재생산 건강권에 대한 요구는 국가주의에 배치되는 것으로 보여졌다. 이런 구조 하에서 여성의 재생산 건강권은 국가를 위해 유보되어야 할 것으로 권리가 되었으나 이는 여성의 재생산권을 인권의 맥락에서 공식화함으로써 국가주의와 공존을 피하는 방식으로 해결될 수 있다고 본다.

지구화 과정은 세계인이라는 새로운 주체를 형성하게 하지만, 여성에 대해서는 노동계급 정체성을 갖지 않는 새로운 여성 노동 주체의 형성을 결과하기도 한다. 조선족은 노동자로서의 자기 정체성보다는 '국제 경험을 통한 문명화된 주체'로 자신을 규정하고자 하였다. 니카라과 조립 공장 여성 노동자들 역시 자신을 어머니, 여공, 이웃 주민, 사회 불평등에 관심을 갖는 중재자로 규정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렇게 지구화 과정에서 "기존의 생산과 재생산

노동의 경계를 넘나들 뿐 아니라 노동, 성, 가족의 경계를 넘나드는 새로운 형태의 여성 주체의 탄생"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이런 새로운 여성 주체에 대한 이해는 기존의 '여성' 범주를 통해서는 가능하지가 않다는 것이다.

군가산점 논쟁의 사례에서는 징병제가 국민화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추진되면서 어떻게 여성을 이류 국민으로 전락시키며 근대화 기획에서 배제하는가를 보여준다. 여성의 완전한 국민권 회복을 목적으로 하는 젠더 정치는 군복무의 수행과 근대 내 남녀 평등으로 이어지게 된다. 국민 국가 내의 성 주류화 전략을 지향하는 젠더 정치는 남성 중심의 근대화 기획에 천착되어 있는 젠더 불평등을 놓치게 된다. 저자는 이 국민화 프로젝트의 기저에 놓인 '국민권' 자체를 문제화하여 여성과 국가의 관계를 새롭게 설정할 것을 주장한다. 국민권 대신에 보편적 인간의 권리 차원에서 인간의 능력을 성취할 수 있는 선택권 부여와 연관해서 군가산점 논쟁을 다시 성찰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대학 내 성희롱 사례는 전통과 근대, 탈근대가 공존하는 우리 사회에서 성적 위계 질서가 어떻게 지속되는지를 드러내주는 것이라고 본다. 대학의 학과 중심주의, 교수와 학생 간의 위계적 권력 관계, 교수들의 '동업자 문화'가 성희롱을 왜곡, 은폐하도록 하고 피해자 여학생으로 하여금 이를 참고 수용하도록 만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여성은 성적 대상으로 다시 각인되면서 대학의 성별 위계 구조가 지속되는 것이다. 한편, 밀양 고교생 집단 강간 사건은 여성의 섹슈얼리티가 지역, 계급, 가족 및 섹슈얼리티 체계 유지에 기여하고 있음을 드러내주는 것이었다. 이 사건의 처리 과정은 피해자 여학생의 섹슈얼리티가 지역, 계급, 가족 체계의 존속이라는 이해 관계에 맞물리면서 어떻게 규정되어가는가를 잘 보여준다. 도덕과 예의의 장으로서 밀양 지역의 이미지를 보존하고자 피해자 여학생은 비정상적인 섹슈얼리티를 지닌 타지역 여학생이라는 점이 부각되었다. 또한 '정숙하지 못한' 여학생으로 인해 건강한 가족의 구성원인 가해자의 행위는 오히려 정당성을 획득하였고, 비정상의 가난한 가정에서 자란 피해자 여학생은 개인 정보 보호권한마저 부여받지 못하였다. 피해자 여학생의 집단 강간 고소는 기존 정상 가족을

위협하는 것으로도 해석되었다.

이들 사례 분석들은 과학기술, 지구화 등에 의해 여성 체험들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으며 이로부터 여성의 젠더 정체성들은 또한 어떤 변화들을 겪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 또한 여성의 섹슈얼리티가 다른 사회 체계와의 상호 교차 속에서 어떻게 구성되면서 여성의 체험, 젠더 정체성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보여준다. 물론, 이 분석들이 서로 다른 맥락을 갖고 진행되었기 때문에 분석 모두가 여성 체험의 구성성을 치밀하게 드러내주고 있는 것은 아니다. 배이복제 연구의 경우에는 상이한 여성 체험보다는 공통적인 여성 재생산권과 국가주의의 대립에 초점이 두어져 있다. 성희롱이나 군가산점제의 사례는 '여성' 범주의 분화 과정을 보여주는 것이라기 보다는 기존 젠더 정치가 이들 문제를 어떻게 개념화하는데 실패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여성' 범주의 분화, 여성의 젠더 정체성의 다양화를 보자면 기존 연구들이 포괄하지 못한 '벌거벗은 생명'의 지위에 놓인 여성들을 더 분석해야 할 것이다. 이는 아마도 현재 여성학 연구자들 앞에 놓인 과제일 것이다.

이미 발표되었던 논문들이 한권의 책으로 엮어 나올 때 공통적으로 부딪치는 문제이긴 하지만, 여기서도 논문들에서 다루는 대안 이론, 여성 운동의 과제나 전략 등에 연계성들이 결여되어 있다. 생명에 형식을 부여해 지배하려는 근대 국가에 대응하는 페미니스트 윤리는 생식 기술이 지배하는 사회에는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까? 너스범의 능력 접근 방법은 페미니스트들의 기술 개입과는 연관이 없는 것일까? 새로운 젠더 정치의 전략에 또한 페미니스트 윤리는 어떤 연관을 맺을 수 있는 것인가? 이런 연관성들에 대한 논의가 이후 연구에서 지속될 수 있기를 바란다. 덧붙여 지구촌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성 운동의 다양한 경험들의 분석을 통해서 "여성 체험의 차이들을 배제하지 않는 여성 운동의 방향과 과제"들을 좀더 구체적으로 도출해내어야 할 것이다. 제도적 억압에 대한 여성 정체성의 강화와 문화적 억압에 대한 여성 정체성의 변형이 운동 전략에 시사하는 바는 크지 않다. 여성 체험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긴밀한 연대를 이루어내며 문제들을 해결해 온 여성 운동의 경험을 심도 있게 분석해보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아울러 '여성'의 범주 정의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현대 과학기술에 대한 페미니즘 연구의 진전도 기대해 본다.